

축대 붕괴·선박 침몰·시설하우스 파손...

강풍·호우 피해 속출

광주·전남 한파... 오늘 최고 5cm 눈

꽃샘 추위를 물고온 강풍과 호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은 6일 밤 늦게까지 강한 바람과 눈발이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전남도는 5일 오후 6시 현재 도내 43개소에서 2억8천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발표했다. 광주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간판 추락 등 1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기상특보=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밤부터 장성·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흑산면 제외)·진도, 전북 고창지역 등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안 3~5cm(기타 지역 1~3cm)이며, 강우량은 5mm 내외가 될 전망이다.

여수·완도·목포·신안·대흑산도와 흥도엔 5일 오후 4시 강풍경보(초속 18~24m)가, 광주와 기타 전남지방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풍랑주의보가 내린 남해서부 앞바다엔 2~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51개 항로 74척의 여객선이 전면통제되고 있다.

기상청은 특히 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0도 ▲낮 최고기온 영

하 1도~4도로 전날보다 푹 떨어지겠다며 농작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속출= 5일 새벽 5시께 목포시 죽교동 백제 한의원 앞 도로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철제 전기구조물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파손됐다. 앞서 새벽 0시22분께 목포시 연산동 신안아파트 부지 축대 50m가량이 붕괴돼 일부 입주인들이 친인척집 등으로 피신했다. 강진군 작천면 지방도 829호선(까치내재) 절개지도 5일 새벽 10m가 무너져 오전 한때 1차선 통행이 금지됐다.

또 4일 밤 11시께 목포시 산정동 축대 붕괴로 창고 1동·빈집 1동 등이 무너지는 등 전남도내에서 주택 5동과 부속사 2동이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는 무안군 망운면 조근나루와 신안군 압해면 월포리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1.76t급 '용성호' 등 어선 3척이 침몰·유실됐다. 광양시 진월면·순천시 도사동·담양군 무정면 등 9 농가의 비닐하우스 2천 210평도 전파·반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무너진 축대 호우로 5일 새벽 축대 50여m가 무너진 목포시 연산동 신안아파트 부지. /목포=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산사태 도로 토사가 흘러내려 교통이 통제된 강진군 작천면 까치내재 절개지. /강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비 횡령·뇌물 수수

평생교육기관 이사장 등 3명 입건

평생교육기관에 지원된 보조금을 횡령한 중학교 이사장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학교 운영에 지원된 보조금 4천만원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교육청 간부에게 뇌물을 준 평생교육기관인 광주 J 중학교 이사장 이모(여·57)씨와 이 학교 전 교장 오모(67)씨를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학급증서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광주시교육청 5급 사무관 조모(5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개교 직후인 2004년 3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교육 당국으로부터 교직원 수당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1천만원을 수령한 뒤 교사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가 일

정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4천77만원을 횡령, 이를 학교운영자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다.

조씨는 2005년 3월 이 학교 학급을 증설하는데 편의를 봐주고 보조금을 많이 받게 해주는 대가로 이씨와 오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학교운영규칙 개정심의회의 협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결정과정과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 학교는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이들과 만학도들에게 중등교육 이수 기회를 주기 위해 2004년 3월 개교했으며, 설립 당시에는 주·야 4학급에 교직원 13명, 학생 120명이었으나, 학급 증설 후 주·야 7학급에 교직원 17명, 학생 245명으로 규모가 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69)



평생교육기관의 중점특강을 누리는 3.6.36 최대혜택! (평생교육 4+1명 혜택 최대 30% 할인) 수권선도시 피오레 문의전화: 062-367-9000

학교 관사에서 교사 숨져

4일 오후 7시55분께 강진군 강진읍 모 고등학교 관사에서 이 학교 교사 최모(53)씨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동료 교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여자프로골퍼 아버지 성폭행 구속

경기도 용인 경찰은 5일 해외 골프대회에서 알게 된 케이블 방송 여직원을 성폭행한 국내 유명 여자프로골퍼 선수의 아버지 A(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일본 후쿠오카 J호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모 케이블방송국 직원 B(여)씨를 성폭행했다는 것.

A씨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일여자골퍼대항전에 딸 매니저로 참석했으며, B씨·PD(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B씨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연합뉴스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 돌려 받는다

법원 판결

골프장을 운영해 온 재일교포 사업가 한모씨(사망)는 1996년 예수의 나이에 27살 연하인 김모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맺어 오다 김씨 명의로 2억7천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졌다.

한씨는 그러나 김씨가 불륜관계를 조기에 그만둘 경우 대비해 내연녀인 김씨 딸 아들 명의로 3억여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씨가 사망했고 다

시 아들을 찾아갔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김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한씨가 원고에게 지속적인 불륜관계의 대가로 증여한 아파트 매수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민법은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금센터 입찰 비리

영업조합, 수사 의뢰

대한영업조합은 "감사원이 2003년 실시된 영암 대불 국산소금종합센터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낙찰자 결정 방법을 변경, 조합에 35억 원의 손해를 끼친 A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이 영업조합에 통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금센터 건설공사와

관련, 조합 회계 규정인 최저가 낙찰 방식 대신 '최적가' 낙찰 방식을 적용, 공사비를 예정가격(133억여 원) 보다 '4인' 적게 쓴 H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했다. 이는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또 낙찰업체는 공사를 19개 업체에 하도급해 46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또 파일 공사비 1억 9천여만 원의 손실과 함께 소금센터 내 도로포장도 규정보다 2~2.5cm 부족 하는 등 부실 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연합뉴스

여수→제주→여수→광주 착륙 하늘에서 '공포의 3시간'

여수공항을 출발, 제주도에 가려던 여객기 승객들이 폭우와 강풍으로 하늘에서 3시간 가까이 공포에 떨었다.

대한항공 KAL 1931편이 81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한 것은 지난 4일 오전 10시57분. 세 차례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는 다시 여수공항으로 갔다가 기수를 돌려 오후 1시40분 광주공항에 내렸다.

회항 당시 제주공항에는 강풍 경보(풍속 21m, 순간풍속 26m 이상)가 내려져 있었다. 또 '윈드시어' 경보(wind shear : 지상 3~4m 높이의 하층부에 부는 바람과 500~1천m 고도의 바람이 풍향·풍속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상층부의 풍향·풍속이 갑자기 바뀌는 국지돌풍)도 발효된 상황이였다. 여수에서 출발한 기종은 보잉 737기로 옆바람(cross-wind)이 초속 30노트(14.3m) 이상일 때는 이착륙이 중단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수공항에 급유 시설이 없어 대체공항인 광주에 착륙했다"며 "회항 이유가 항공사 귀책 사유가 아니어서 금전적인 보상은 없었고, 대신 승객들이 여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정용 에어컨

다양한 모델 1788-7557
문의: 02-315-7800

가정용 에어컨 설치비용은
공무원 여왕이 시작합니다.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모델명	가격
가정용 에어컨	100,000+
가정용 에어컨	250,000+
가정용 에어컨	400,000+
가정용 에어컨	550,000+
가정용 에어컨	700,000+
가정용 에어컨	850,000+
가정용 에어컨	1,000,000+
가정용 에어컨	1,150,000+
가정용 에어컨	1,300,000+
가정용 에어컨	1,450,000+
가정용 에어컨	1,600,000+
가정용 에어컨	1,750,000+
가정용 에어컨	1,900,000+
가정용 에어컨	2,050,000+
가정용 에어컨	2,200,000+
가정용 에어컨	2,350,000+
가정용 에어컨	2,500,000+
가정용 에어컨	2,650,000+
가정용 에어컨	2,800,000+
가정용 에어컨	2,950,000+
가정용 에어컨	3,100,000+
가정용 에어컨	3,250,000+
가정용 에어컨	3,400,000+
가정용 에어컨	3,550,000+
가정용 에어컨	3,700,000+
가정용 에어컨	3,850,000+
가정용 에어컨	4,000,000+
가정용 에어컨	4,150,000+
가정용 에어컨	4,300,000+
가정용 에어컨	4,450,000+
가정용 에어컨	4,600,000+
가정용 에어컨	4,750,000+
가정용 에어컨	4,900,000+
가정용 에어컨	5,050,000+
가정용 에어컨	5,200,000+
가정용 에어컨	5,350,000+
가정용 에어컨	5,500,000+
가정용 에어컨	5,650,000+
가정용 에어컨	5,800,000+
가정용 에어컨	5,950,000+
가정용 에어컨	6,100,000+
가정용 에어컨	6,250,000+
가정용 에어컨	6,400,000+
가정용 에어컨	6,550,000+
가정용 에어컨	6,700,000+
가정용 에어컨	6,850,000+
가정용 에어컨	7,000,000+
가정용 에어컨	7,150,000+
가정용 에어컨	7,300,000+
가정용 에어컨	7,450,000+
가정용 에어컨	7,600,000+
가정용 에어컨	7,750,000+
가정용 에어컨	7,900,000+
가정용 에어컨	8,050,000+
가정용 에어컨	8,200,000+
가정용 에어컨	8,350,000+
가정용 에어컨	8,500,000+
가정용 에어컨	8,650,000+
가정용 에어컨	8,800,000+
가정용 에어컨	8,950,000+
가정용 에어컨	9,100,000+
가정용 에어컨	9,250,000+
가정용 에어컨	9,400,000+
가정용 에어컨	9,550,000+
가정용 에어컨	9,700,000+
가정용 에어컨	9,850,000+
가정용 에어컨	10,000,000+